

HP(HPK&HPPK) >

[HP멘토링] 3차 멘토링 후기&Resume와 모의 인터뷰 후기 - 5/26 LinkedIn, 6/23,7/3



고나연 멘티 🌱

2023.08.23. 16:35 조회 12

💬 댓글 0 URL 복사 ⋮

늦은 포스팅이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공통 멘토링 세션을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HP의 클로징 이벤트 후 지난 멘토링을 돌아보니 모두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 중에 제일 도움이 되고 흥미로웠던 세션이라고 생각하여 후기를 작성합니다.

모의 인터뷰와 1:1 resume 첨삭 과정은 사진을 남겨놓긴 하였으나 찾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차 멘토링에 관한 증빙 사진만 첨부합니다!



[HP멘토링] 6/21 소그룹 멘토링 후기



고나연 멘티

2023.08.23. 16:55 조회 11

댓글 0 URL 복사

전체 멘토링 외에도 소그룹 멘토링 또한 저에게 한 가지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 가르쳐주는 것이라 하죠?

저희 멘토링에서도 멘티들이 5,6,7월의 각각마다 한 명씩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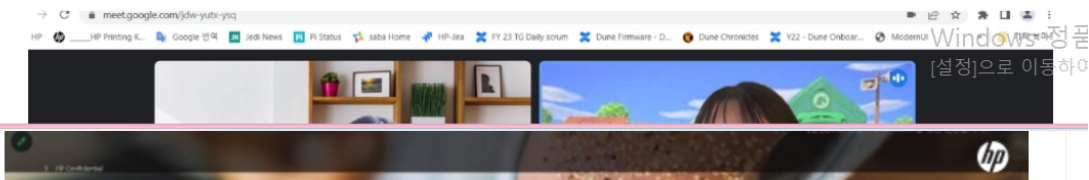
5월(송민영 멘티), 6월(저), 7월(박민주 멘티) 이렇게 진행되었고, 아무래도 저는 제가 준비한 6월 멘토링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준비한 것에 비해서 티가 많이 난다는 점을 감안하니 이제까지 멘토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지 체감이 확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그룹 멘토링을 하면서 각자의 작은 목표를 2~3개씩 정하여 소그룹 세션때마다 검사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

매일 매일 이 멘토링 생각나서라도 그 목표와 습관을 지키려고 각인을 하다보니 저에게 순기능이 된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거의 온라인으로 봤지만, 왠지 모를 정이 들었고, 멘토링은 끝이 났지만 정말 소중한 인연들과 맺어진 느낌이 들어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고 축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저는 LinkedIn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SNS에 대해 긍정적 시선보다 부정적 시선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인식을 재고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용법이 익숙치 않고 플랫폼 자체가 어색하여 멀리 하였지만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저의 career적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현명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점점 친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각이 잡힌 포트폴리오도 물론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이 잡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기에 LinkedIn은 가볍게 career활동을 적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 이후에 저희 소그룹 멘티들, 멘토분과 친구 추가를 하여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career적 근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동기부여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플랫폼을 소개해주신 hp멘토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소그룹 말고 모의 인터뷰를 위해 임시로 짜주신 그룹끼리 인터뷰 연습을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활동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면접을 보지 않았을 정도로 면접을 접한 기회가 적어인지 이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지 멘토분께서는 멘티들의 긴장을 여러모로 풀어주기 위해 친근하게 다가오셨고, 그 사람의 이력 높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묻는 질문들을 하셔서 신선하였고 덕분에 저도 말씀드리다 보니 저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근하게 다가오셨으나, 피드백은 확실히 해주셨고 이에 따라 저는 모의 인터뷰에 대한 감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피드백이 있었지만, 저는 좌우명을 피드백해주시는 부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드러나게 답변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다른 멘티들의 모의 인터뷰 또한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고, 완전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틀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시간 대비 얻어간 게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았지만 강력했던 1:1 Resume feedback! 왜 hp멘토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쓴 resume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세세하게 수정을 권장해주셔서 '이런것까지 해 주신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지만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과 외국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 그리고 인사팀에서 보는 눈부터 달라서 쓸 때 정말 갈피를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무엇을 중점으로 써야할 지 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짧아서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정말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글로벌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때의 시간이 배로 값져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